㈜호원, 현대기아차그룹 '기술5스타' 인증 획득

1차 부품 협력사 450곳 중 차체 부품 단 3곳 뿐
경량 소재 신공법·디지털 기반 설계 검증 등 주효
신차 개발 우선 참여 등 혜택…"미래 자동차 선도"

㈜호원은 14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그룹 '2025년 협력사 평가'에서 기술 5스타 인증패를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배세영 ㈜호원 설계시작팀장, 김병호 부품개발실장, 권병칠 ㈜호원 연구기술본부장, 윤창권 ㈜호원 대표, 양승빈 ㈜호원 부사장, 양필석 생산기술실장, 이상헌 선행연구팀장.

광주를 대표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전문기업 ㈜호원(대표 윤창권)이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평가에서 기술 부문 최고 등급인 '기술 5스타'를 획득하며 지역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단순 납품을 넘어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술 파트너'로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호원은 14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그룹 '2025년 협력사 평가'에서 기술 부문 최고 등급인 '기술5스타' 인증을 획득한 데 따른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기술5스타'는 협력사의 연구 인프라와 R&D 역량, 미래 기술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으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만 주어진다.

이번 인증은 전체 협력사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자동차그룹 1차 부품 협력사 450여곳 가운데 기술5스타를 보유한 기업은 37곳으로 상위 약 8%에 불과하다. 특히 차체부품 분야에서는 단 3개사만 이름을 올렸다.

㈜호원이 이 명단에 포함된 것은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내에서도 최상위권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기술5스타' 제도는 지난해부터 평가 방향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연구소 인프라 보유 여부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신차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품질·성능·원가·중량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설계와 해석, 시험, 양산까지 개발 전 주기의 실무 연계 수준이 핵심 평가 요소로 부각됐다.

평가 항목은 기초역량, 수행능력, 미래역량 등 세 개 대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수행능력 비중이 전체 점수의 70%를 차지한다. 제품개발 절차, SR 대응, 과거차 문제관리, DFMEA, DR, 해석, 시험/ESIR 등 신차 개발 전 과정이 세부 항목으로 평가된다. 단순 문서 관리 수준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적용 사례와 개선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다.

㈜호원은 이번 평가에서 경량화 차체 부품 설계 능력과 양산성 확보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 품질·성능 평가 역량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 성형 신공법과 디지털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 시험·해석 상관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성형해석 결과를 기술 표준과 설계 가이드로 연계하는 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호원의 종합 점수는 92.4점으로 전회 대비 2.7점 상승했다. 이에 따라 등급도 기존 '4+'에서 '5-'로 한 단계 상향되며 차체 협력사 가운데 상위권에 진입했다. 평가자들은 호원이 이전 대비 개발 체계 전반에서 뚜렷한 개선과 평가 대응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의 적극성과 책임감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기술5스타 인증을 통해 ㈜호원은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신차 개발 우선 참여 기회 확대와 결제 조건 개선, 정부 과제 지원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도 기술 신뢰도를 입증하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양승빈 ㈜호원 부사장은 "이번 기술5스타 획득은 전 임직원이 기술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파트너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약패키지' 기업 모집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지원사업은 딥테크 분야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딥테크(AI·빅데이터, 로봇)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또는 기업이다.

광주창경센터에서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20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약 10개월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평균 1억7000만원(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후속 투자 유치 역량강화, 글로벌 진출, 기술사업화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창경센터는 기업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액셀러레이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조합 조성 등 투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권 최초의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 당해연도 선정기업 대상으로 10억원을 직접투자할 계획이다.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는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

CES 2026서 빛난 광주…"AI 산업 지원 성과"

AI사업단 지원 20개사 수상
콘텐츠 등 핵심 기술력 인정
글로벌 투자 유치 등 기대도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관람객들이 망고슬래브㈜ 부스를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 인공지능(AI)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의 지원을 받은 지역 AI 기업들이 혁신상 25개를 수상하며, 광주 AI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4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단장 오상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20개 기업이 25건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업은 ㈜네이션에이, ㈜엘비에스테크, 망고슬래브㈜, ㈜인디제이, ㈜에이드올, 마인스페이스㈜, ㈜고스트패스, 이노디테크㈜, ㈜올더타임, ㈜토라, ㈜딥센트, ㈜인포플라, 가우디오랩㈜, ㈜엑소시스템즈, ㈜리빌더에이아이, ㈜맵시, ㈜옵트에이아이, ㈜에이아이비즈, ㈜에프디테크, ㈜미피아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3개 기업은 각 분야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혁신상'을 수상해 광주 AI 기업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임을 증명했다.

먼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에이는 텍스트·음성·영상 프롬프트를 정밀한 3D 모션으로 변환하는 AI 기반 모션 제작 도구를 선보이며,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바일 기기·액세서리 및 앱'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망고슬래브㈜는 AI 기반 점자 라벨 프린터 기술을 통해 접근성 혁신 분야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CES 2026 혁신상 수상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은지 기자 eunzy@

KT 위약금 면제 14일간 31만명 떠났다

이탈 고객 64.4% SKT로 이동

KT가 가입 해지시 위약금 면제를 진행한 2주 동안 31만명의 고객이 떠난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4만6120명으로 이 중 2만8870명은 SK텔레콤, 9985명은 LG유플러스로 갈아탔으며 7265명은 알뜰폰(MVNO)으로 이동했다.

KT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31만2902명의 고객을 잃었다.

KT로 유입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17만9760명이 순감했다. 알뜰폰(MVNO)까지 포함하면 23만8062명이 감소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 16만2953명, 4만7772명 순증했다. 알뜰폰 포함시 순증 규모는 각 16만5370명, 5만5317명이다.

KT를 이탈한 가입자 31만2902명 중 SK텔레콤으로 간 가입자는 20만1562명(64.42%), LG유플러스로는 7만130명(22.41%), 알뜰폰으로는 4만1210명(13.17%) 순이다. KT에서는 하루 평균 2만2000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총 번호이동은 8만3527건이다. KT는 가입자 4만6120명이 적을 옮겼고 이 가운데 2만8870명은 SK텔레콤으로 LG유플러스 9985명, 알뜰폰은 7265명을 유치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막바지였던 지난 12일과 13일에는 가입자들의 이탈 행렬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이동자 수 31%가 몰렸다.

위약금 면제 시작과 함께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해 전산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요일 예약까지 개통돼 트래픽이 몰리는 월요일인 지난 5일과 12일은 물론 6일에도 간헐적인 전산 오류가 생겼다.

이번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이탈 고객 상당수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은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정황 서버를 폐기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로써 KT가 위약금을 소급 환급하기로 한 작년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이탈 고객은 약 35만명으로 KT가 환급해야 할 고객은 총 약 66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